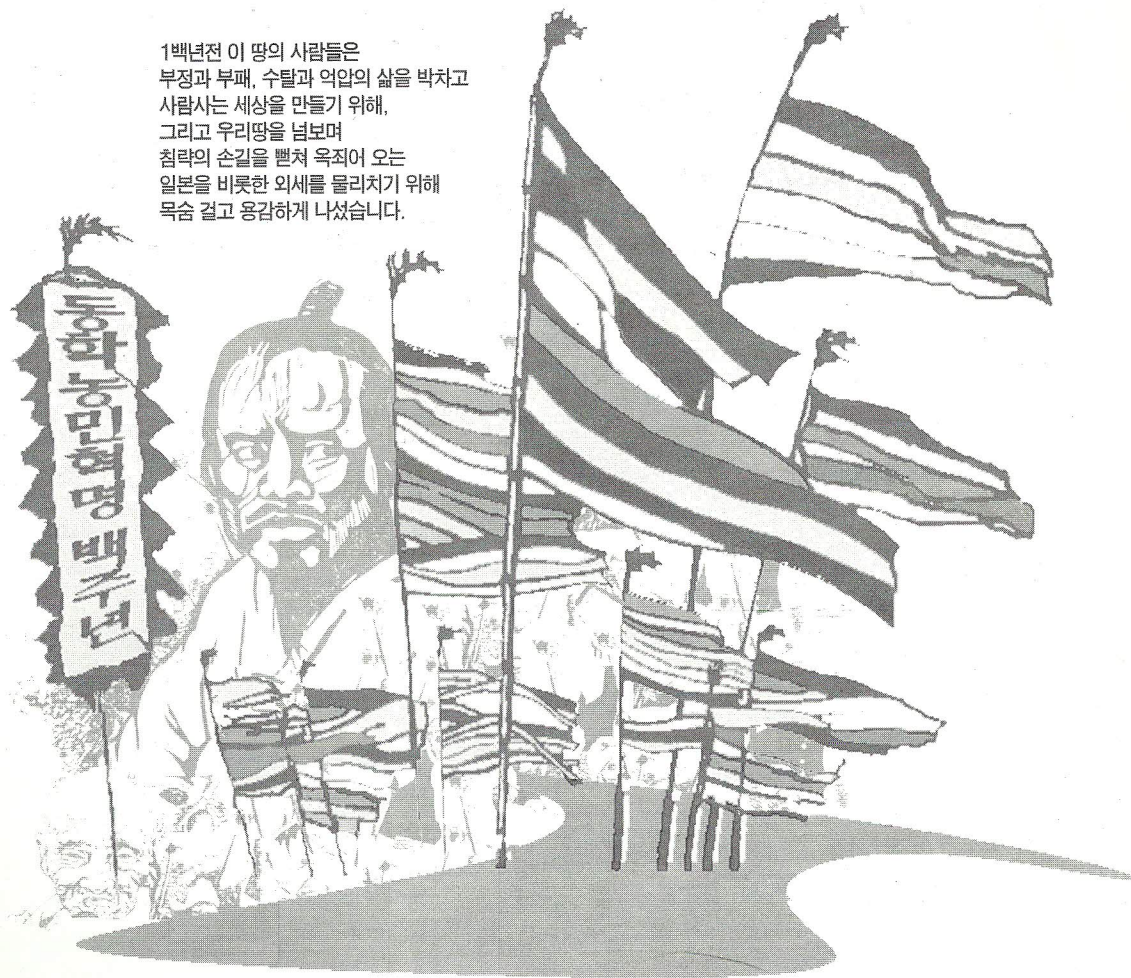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

# 고부봉기 역사맛이 굿

1백년전 이 땅의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 수탈과 억압의 삶을 박차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땅을 넘보며  
침략의 손길을 뺏쳐 옥죄어 오는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목숨 걸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1994.2.26(토) ▶ 27(일)**

정주시 고수부지, 말목장터, 전봉준 고택, 예동, 만석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주최/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전북일보사, 전주문화방송  
● 후원/문화체육부 ● 협찬/한국경제사회정책연구소

● 행사내용

# 전야굿

2월26일 / 정주 시가지, 고수부지

## 1. 앞길놀이 : "갑오세, 가보세"

- 16:00 시가지 가장행진 (풍물패, 농민군, 관군, 깃발행렬)  
 행진구간 : 정읍역-버스터미널-군청-고수부지  
 17:00 경당 무술 조련 및 풍물놀이 : 시가행진 일행 맞이와 농민군 훈련  
 17:20 패러글라이더 낙하

## 2. 개막열림굿 : "때가 왔네 때가 와!"

- 17:30 열림굿고사 : 고사문 낭독, 축사, 큰북춤, 북춤

## 3. 초청 한미당

- 18:00 공옥진 창무극  
 18:30 어린이 합창단 - 새야새야, 다듬이 소리, 그리운 강남

## 4. 마당굿 ① : "났네 났네, 난리가 났어!"

- 18:40 1마당 : 등소마당:전창형등 관아에 등소  
 2마당 : 사발통문과 식사의례 마당:남자들 사발통문, 아낙네들 식사준비의례  
 3마당 : 접전마당-경당 무술 시범 및 농민군과 관군의 접전 재현  
 19:20 동학노래 모음(원광대 노래패) - 녹두꽃, 이 산하에, 죽창가 등

## 5. 마당굿 ② : "칼노래, 칼춤"

- 19:30 1마당 : '용편검 드는 칼을 아니쓰고 무엇하리'  
 2마당 : 효수거리  
 3마당 : 청수 한동이

## 6. 뒷전거리

- 20:30 뒷전거리:햇불춤 행렬, 대동한마당

## ● 출연진

- 풍물패(200명) : 전주백주년기념연합풍물패, 고창대산국교 어린이풍물패  
 정주시·정읍군 농악단, 서울 한두레, 살판, 맘판, 씨알누리, 터울림
- 연극배우(50명) : 전주시립극단, 창작극회, 극단 황토, 극단 불꽃, 놀이패 우금치  
 극단 토박이, 극패 갯돌, 극단 자갈치, 놀이패 신명  
 극단 우리굿사랑, 민족극패 울력, 극단 아리랑
- 무술패(50명) : 광주 민족무예 경당
- 농민군(100명) : 정읍농민회 회원
- 어린이합창단(40명) : 정읍동국교어린이합창단
- 노래패 : 원광대 노래패
- 패러글라이더(20명) : 정읍패러글라이더
- 특별출연 : 공옥진 창무단, 심우성, 김명곤



# 역사재현극

2월27일 / 전봉준장군 고택, 말목장터, 고부관아터, 만석보

- 09:00 **상황1 - "님이시여,님이시여"**  
단비제례의식, 전봉준 장군 고택 마당밧기 / 예동 풍물굿  
- 전봉준고택/예동
- 10:00 판얼음 고사굿(풍물비나리, 축사) - 말목장터
- 10:30 **상황2 - 말목장터 기포 재현극 "드는 낮으로 네 목을 치리라"**  
(고택,예동 풍물패 집결) - 말목장터  
전봉준 연설-도로
- 11:10 고부관아 행군(차랑이동) - 도로
- 11:30 **상황3 - 고부관아 진격 재현극-고부국교 (옛 고부관아터)**
- 12:00 고부관아에서 말목장터로 이동 - 도로
- 12:30 **상황4 - 점심 식사 의례 및 관군 염탐꾼 체포 재현**  
(특별출연:김명곤)-이평국교
- 13:30 만석보 행군 -도로
- 14:30 **상황5 - 예동 마을 상황극**  
"천석꾼, 만석꾼아, 보릿고개 주먹밥 썩 내놓아라"  
① 진주, 보은 등지에서 온 동학군 집결과 타지역 소식, 어머니 등장 만류  
② 예동 두전 보세마 접수 재현 -예동
- 15:00 또다시 만석보 행군
- 16:00 **상황6 - 만석보 도착, 만석보 혁파 재현극 -만석보**
- 상황7 - "오늘은 백만 농군이 모다 봉준이로다" - 만석보**  
① 농민군과 관군 접전 재현 및 차전놀이  
② 무장 기병, 백산집결, 황토재전투, 전주성 점령 상황극
- 17:30 **대동극 : 들불, 쥐불놀이, 불화살, 달집 태우기, 불글씨 태우기**
- 18:30 **맺음극 : 칼노래 칼춤(개개인 다짐의 의례 절차), 소지, 횃불춤행렬**
- 19:00 백산집결 - 백산

## 갑오농민군의 순결을 찾아나서서

고부봉기 역사맞이굿  
창작에 관한  
몇가지 짧은 생각

총연출 / 채희완

1. 마땅히 되새겨 기념해야 할 역사적 사건을 오늘날 연행으로 재현하는 역사맞이굿은 마당굿을 공부하고 마당판을 나서보는 사람들로서는 한번은 꼭 해보아야 할 필생의 일로 꼽아 왔다. 해마다 삼월 삼짇날이면 가야국 사람들은 봄기운이 완연한 바닷가에 모여들어 수로왕이 황후를 맞아들이던 때의 그 은성하고 푸진 혼인의례를 물맞이굿으로 재현했다고 한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서 그 나라의 위세에 혹 가다가 뒤질세라 있던 없든 나라 경제력을 쏘아 부어가며 치룬 이 물맞이굿은 그후 전승이 끊기고 이젠 삼국유사의 몇 줄 글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우리 연극의 한 기원을 이루었음에 분명하다. 그 물맞이 나라굿에 온백성이 스스로 정성을 다 바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굿은 일은 예나 이제나 없는 놈이나 아랫것들에게 넘겨졌을 터이고 굿판은 역시 굿패들 차지였을 것이다. 우린 이런 전통을 대물림 받고 있다.

신화체계를 행위로 전승하던 시절은 가고 신화시대 신맞이굿 물맞이굿은 과학시대 역사맞이굿으로 바뀌었다.

두고 보면 동학농민혁명 은 온나라의 “난리굿”이었다. 우리는 이 난리굿을 민중연회의 전통으로 대물림받아 오늘 역사맞이 난리굿을 벌인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하여 바로 이곳 고부에서 그 때 음력 정월에 때맞추어 벌이는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은 민족 문화진영의 중핵사업의 하나이고 민족극운동협의회로서는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마당굿 연회자로서는 두고두고 별려 온 필생의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살아생전 백년만에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맞이굿. 때가 이르렀고 때가 왔다. 두번 다시 못 올 부재래지 시호요, 파시, 오만년지 시호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사의 뜻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시 실제 상황의 재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기운을 오늘 이 땅 위에 역사적으로 현재화한다. 또 동학농민혁명사의 재현을 통해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제폭구민의 반외세 민주혁명정신을, 당면한 민족현실 과제를 해결하는 줄기로 곧추잡고 남녘땅 활인 후천개벽사상의 새로운 세계상을 연행으로서 건립한다.”

2. 동학농민혁명의 첫 횃불을 올렸던 말목장터, 고부판아터, 전봉준 장군 고택, 만석보, 백산 등지를 공연장소로 잡는다. 역사의 현장이 곧 연행의 현장이다. 그러기에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은 이곳 고부땅을 디디고 이 땅의 기운을 몸으로 받아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곳은 수십회에 지나지 않는 작은 마을들로 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감행된 농촌 초토화 소개 작전의 피해 모습이 곳곳에 배어있다. 백년전 당시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밤 칼바람을 가르며 진격하던 기세는 간곳 없고 검붉은 흙빛만이 혁명기운의 자취를 되비추일 뿐, <두성산 어언마는 녹두집이 그 어덴고 / 뒤임진 늙은이 대답은 앓고 / 고개를 배트소름하고 묻는 나만 보누나> 살아있으면 올해 94세쯤일 조운 시인이 지은 ‘고부 두성산’시조의 첫머리이다. 혁명기의 썰썰한 뒷 행로를 보듯 시인의 어찌지 못하는 심경이 지은 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현장감으로 다가온다. 상대가 술단지 걸머쥐고 모여들어 수만 농군이 운집했던 ‘얕으면 죽산 서면 백산’도 고만고만한 비산비야의 동산일 뿐이고 그나마 이제는 채석장이 들어서 산을 깎아 먹고 있다. 육부족 가야국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 사흘 낮 밤을 구지가로 노래부르며 춤추며 나라굿판을 벌이던 구지봉이 깨어보니 일개 언덕배기에 지나지 않았는지 않던가. 이 백산도 천국을 뒤흔든 농민혁명의 최초 대규모 집결지로서 한갓된 야산일 뿐이다. 그러나 백산은 사방팔방 툭 트인 시계를 보여주어 마치 세상물정을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 하다. 손바닥만한 땅에 운집한 농민군! 없는 것으로 많은 것을 담고 가장 작은 그릇으로 큰 것을 담아내는 하늘과 땅의 뜻을 실물 자체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소리없이 고즈넉한 농촌풍경 속에 죽은 듯이 살아가는 촌사람들의 일렁거리는 농업 생존의 마지막 울부짖음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스스로 깨치고 일어난 그 혁명기운은 다만 숨어있을 뿐이다. 역사맞이굿은 백년동안 덧씌워진 역사 속에 가시 덩굴로 뒤덮여 이제는 찾을 길 없는 동학농민군의 숨결을 찾아 나서는 행로이다. 그것은 백년전이나 백년후이나 민족구성원 개개인마다 몸 던져 뚫고 나서야 할 혈로의 일대 행군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 조운 시인의 시조 종장 귀절의 뜻을 모시어 이번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의 큰 제목으로 삼아 말문을 연다. “오늘은 백만 농군이 모다 봉준이로다”



3. 동학농민혁명이 지나는 전역사적 동아시아적 세계사적 의미를 감안하고 그 발생의 진원지이자 주도세력의 지역성을 고려해보아 이번 역사맞이곳의 정서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것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 연계 그물망을 정서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곧 호남 지역의 뿌리깊은 정서와 타고난 예민기질, 딴 곳에서 흉내낼 수 없는 말솜씨와 소리창, 전라도 개땅쇠 후예로서 구불구불 황토길 같은 배넛몸짓, 이런 전라도 밑바닥의 참한 광대성을 이번 역사맞이곳의 수원지로 한다. 그리고 이번 역사맞이곳은 관중을 비롯한 모인 사람 모두가 고부 첫 봉기의 생생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도록 하는 역사체험의 마당이다. 관중의 의식적이고도 능동적인 직접 참여 속에 신명 체험 현장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열쇠가 된다. 그런 만큼 관중이 판에 끼어 들고 적극 개입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관중에게 일정한 극적 역할을 분담케 하는 사전 연출 방식이 상정되고 이를 현장적으로 관통시킬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 준비된 출연자들은 현장 관중 출연자들의 길잡이 노릇을 한다.

4. 틀거리를 잡아 작품을 구성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한다. 역사적 사건의 세밀한 묘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중핵적인 흐름을 큰 중심줄기로 잡아내고 이를 몇가지 잔가닥으로 흐트러 풀어내면서 마디마디마다 유기적 연관관계로서 살아있는 나무등걸을 만든다. 앞뒤 문맥이나 구조의 순차적이고 논리정연한 구성방식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다. 굵은 선으로 가서 매듭을 짓되 앞뒤를 태극선 같은 이음새로 연결짓는다. 아니면 틈새를 주어 창조적 여백을 두든가 한다. 맺고 풀, 차고 이음, 내고 닦, 내지름과 견음해, 태극선 등은 이 작품에서 구사하는 동력선이다. 이러한 작품의 동력선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남긴 과제가 굴러 오고 또한 굴러가는 역사적 공간방위의 동력선과 부합되도록 지극히 애써 본다.

5. 시간과 공간을 옮겨 가며 벌어지는 마당별 각 종목들은 다음의 이름으로 개별화한다. "갑오세, 가보세", "났네 님네 난리가 났어", "칼노래 칼춤", "님이시여 님이시여", "드는 님으로 네 목을 치리라", "모시고 드소서", "천석꾼 만석꾼아 보릿고개 주먹밥 썩 내놓아라", "오늘은 백만 농군이 모다 봉준이로다" 이들 개개의 마당들은 한가지 진행방향으로 가는 한 몸뚱아리의 것이되 그 몸을 구성하는 각기 고유한 부위들이다. 한 부위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만 이들 각 부위들은 부분의 독자성을 견지한다. 각 부위의 종목마다 완결 구조를 가지고 전체 속에서 저 나름대로 자유분방하다.

6. 이번 고부봉기 역사맞이곳에 나오는 크고 작은 재현 곳, 상황 곳, 마당 곳, 모두에게 관통하고 있는 작품의 '경락' 구조는 무엇인가. 동학농민혁명을 살펴보고 나아가 헤아려 보는 '역사를 산채로 깨쳐보려는 큰 눈', 그 거대한 기운을 우리는 두가지 진영으로 본다. 그 하나는 역사전면에 우뚝

서 정치일선에서 현실투쟁적 건도의 길을 간 전봉준 녹두장군과 그의 휘하전투에 직접 참가한 장두 및 농민군들이다. 또 하나는 역사의 밑면에 자리잡아 본원적인 세계에서 기본세력을 조직적으로 감싸안는 여성적 끈도의 길을 간 해월 최시형 선사와 비전투원으로서의 아낙네들과 부상자들과 공배팔이 병신군상들이다. 앞의 전투요원은 말할 것도 없고 후방의 사람들도 결국은 참전용사다. 그러므로 녹두장군의 노선과 해월 선사의 노선의 차별성은 인정하되, 이들의 노선을 남접, 북접의 내부 접전이라거나,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급진, 보수 등의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요체이다. 서로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한생명체로서 나눌 수 없는, 나누면 각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다, 아니다'라는 원순관계의 '중심적 자기 활로의 자기 활동'의 두갈래이자 또한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의 분담과 병진은 결국 역사 속에서나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세계 속에서 늘 그렇게 활동해왔고, 또 드러나 왔다고 본다. 어쩌면 병산의 일각을 떠받치고 있는 크기를 알 수 없는 덩어리아말로 역사 진보의 견인차 노릇을 맡았이 수행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리라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작품 곳곳에 보일듯 말듯 작품의 끌어가는 아낙네들, 병신 잡것들, 부상자들, 죽은 자들의 제 뒫을 걸고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비전투요원이었던, 그러나 고부봉기의 기폭제 역할을 떠맡았던, 당대 풍물패의 뜨거운 피흐름을 담아야 할 책무가 문화패에 주어져 있다.

7.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연행적으로 총전시키기 위해 민국협인 사람들이 뜻과 몸과 힘을 모았다. 크고 작은 일거리마다 여기에 참가한 모두가 오늘날 봉준이로서 포접의 장두 노릇을 하였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굵은 일에 정성을 다해주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음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그리고 민예총의 부역살림꾼들, 집안살림꾼들의 음덕을 함께 기리어 그 고마운 정을 연행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내장산에 모여 총연습을 하면서 식사 때마다 되뇌이고 부른 이십일자 주문과 심고, 식고, 그리고 칼노래 칼춤의 검검처럼 이번 행사물의 노래, 춤, 조형 형상물, 주문들 모두 늘 일상생활 속에 불리워지고 추어지고 쓰여진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번 역사맞이곳이 동학농민혁명백주년 기념행사의 기포이자 총체적 열림곳의 뒫을 단단히 하여 올 한해 이루어지는 기념사업의 신나는 예측마당이 되길 다짐해본다. "모시고 늘 무고하소서."